



元仁浩소장

▲ 발명인

- ▲ 일원산업기술연구소 소장
- ▲ 국제발명전 35회 수상
- ▲ 산업포장 수상
- ▲ 철탑산업훈장 수상

4·19때 낙향이 발명 계기

▲ 소장님의 발명동기와 이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29년전 4·19의 거를 아십니까? 그때 저는 국민대 경제학부의 꿈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뇌 및 하퇴부 부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인 충남 천안으로 낙향하게 되었지요. 그때 제가 찾아간 고향은 너무도 낙후된 농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낙후된 농촌 및 산업분야에서 연구생활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일차산업으로 농기구 개량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발명 동기로, 그때 전답 직파기·살충등·4H용 배기장치·미생물 발효기법·인스턴트식품(곰국 가루등) 등을 발명하여 나름대로 농촌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력은, 68년 고려발효화학연구소 설립으로 전국 2천7백개 양조장 양조기술지도, 70년 한국농촌경제문제연구소 설립으로 전국 농촌순회 과학영농기술지도, 72년 성원산업기술연구소(현재 일원산업기술연구소로

【부제】

나의 發明

『살아 숨쉬는 발명은 기업의 씨앗인 동시에 인류 행복의 원천이지요. 그러므로 발명은 인류 행복을 위한 최상의 길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응용하면 불행도 맞이할 수 있지요. 다만 행복을 위한 방향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발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하는 절대 절명의 요체인 것이지요.』

29년을 발명이란 외길을 걸어온 집념의

상호 변경) 설립과 75년 세운상가에 윤성전자기술 상담소 설립으로 위탁발명·기술지도·자체발명, 제네바국제발명전조직위원회 아시아지역 간사장 및 사무총장, 소년경향 발명교실 심사위원장, 한국·필리핀 및 한국·알젠크순수민간협력위원회 한국측 대표 등이 있습니다.

1천 2백여건 발명

▲ 소장님의 그동안 발명하신 발명품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 지금까지 위탁발명과 자체발명을 모두 합하면 1천2백여건쯤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개량호미·개량메주·발효촉진 약품(효소)·인스턴트 식품(국내 최초의 곰국가루 등) 종합 폰라디오·건강양말·힘샘 팬티, 전천후 수륙겸용 텐트·다목적 선풍기·건조 겸용 에너지 발생장치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국제발명전에서 수상한 발명품이지요.

이들 발명품 중 건강양말은 이미 국내 시판은 물론 세계 2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지요. 또 건조 겸용 에너지 발생장치는 일본의 투명기와 발명의 근간이 되기도 했지요.

▲ 건강양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명하셨습니까?

나의 發明技法

발명인 일원산업기술연구소 원인호 소장의
좌우명.

1천2백여건(수탁 7백여건, 자체 5백여건)
에 이르는 각종 발명을 하여 「한국판 에디
슨」으로 통하는 원소장은 국내 못지않게
국외에서도 그 명성이 대단하다.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22-4 일원산업기술
연구소를 찾아, 원소장과 자리를 같이하고
그의 발명이야기를 들어보았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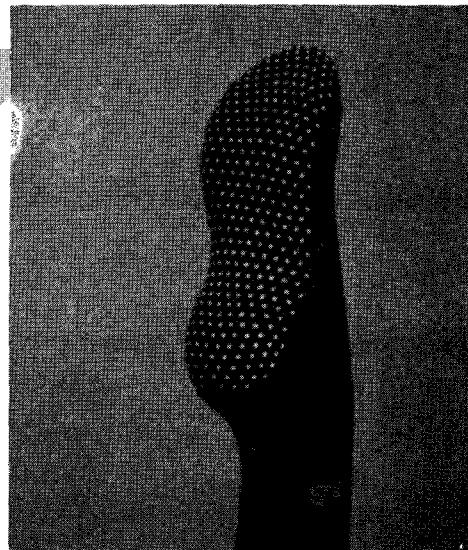
◎ 저는 발로 뛰는 발명인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양말을 생각할 수 있었고, 침구의사인
관계로 다른 발명인보다 앞서 건강양말을
발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양말
은 동양의학과 인체공학을 기초로 한 첨단기
술이 만든 제품으로써 특수한 기술입자(땀·
악취제거·무좀예방)가 양말바닥 안팎으로
돌출(지압·활력)되어 인체전신의 기능과
연결된 경혈 및 병점등의 부위를 자극(변
비·두통·불면증·고혈압)하여 체내를 활성
화시켜 줌으로써 완전한 건강을 지켜주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지요.

▲소장님의 발명비결과 기법은 무엇입니까?

◎ 발명에 있어 비결이나 기법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요. 저는 연구실이 따로 없습니
다. 일상생활은 물론 잠자리까지가 모두 연구
실입니다.

저는 많이 보고, 많이 읽고, 자연과 호흡하
며 자나깨나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기록합니다. 저의 발명수첩은 저와 잠자
리까지 같이 합니다. 많은 발명인들이 그렇듯
이 저도 잠자리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
곤 하지요.

또 저는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는
빠짐없이 참가 또는 관람하고 있으며, 외국



전시회도 가능한한 모두 참석하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의 시장·백화
점·골목을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다니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물이 발명의 대상입니다. 어느
것 하나 발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나 완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개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저는 특정분야가 아닌 기계·전
기·전자·식품·농수산·잡화등 산업 전분
야에 걸쳐 1천2백여건의 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연구소는 불(전등)이 거지지
않는 밤이 많다던데, 연구는 주로 밤에 하십
니까?

◎ 천만에요. 연구에 밤낮이 따로 있을 수
없지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발명인이 밤을 세워 연구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철탑산업훈장도 받아

▲ 그동안 발명시 애로점과 그 해결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모든 발명인들이 그렇듯이 저도 자금
(연구비)·연구시설·관계 자료 부족이 가장
큰 애로점이었습니다.

제 경우 자금과 연구시설은 7백여건의

위탁발명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했으며, 자료부족은 등산과 독서를 겸한 휴식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유관된 제품 및 구상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자료부족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발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자료와 발명인의 아이디어 및 지혜가 조화를 이를 때 비로소 하나의 발명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장님의 발명을 통한 국내외 수상 경력을 소개해 주시지요.

◎상을 타려고 발명을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니었는데, 어느 사이 국제발명전에서 35회를 수상하여 세계 제2인자로 기록되었으며, 국내에서는 82년 산업포장에 이어 88년에는 철탑산업훈장까지 받는등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밤을 세워 발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발명인생은? 그리고 소장님 생각하시는 성공한 발명인이란 어떤 것인지요?

◎저의 발명인생요? 한마디로 가정에선 낙제생, 개발에선 선구자, 일상생활(특히 외국에 나가면) 탐구자라 할 수 있지요. 제가 성공한 발명인인지 실패한 발명인인지는 저보다는 독자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할 문제이니 생략하기로 하지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발명인이란, 보다 새로운 차원의 앞날이 약속되는 학술적 가치 제안과 살아 숨쉬는 발명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씨앗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겸허하고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발명인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발명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명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지요. 따라서 때로는 엉뚱한 것이 탄생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성공

한 발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모든 발명에 앞서 제품가능성과 시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발명인

▲소장님의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발명인상은 무엇입니까?

◎우선 앞에서 설명한 성공한 발명인의 조건을 갖추어야겠고, 여기에 추가할 것이 있다면 스스로 노력하는 발명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발명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따라서 발명인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명은 발명인 자신을 위한, 발명인의 재산(무체재산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사회가 도와주기를 요청하기에 앞서, 정부나 사회가 발명인을 스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오직 발명에 몰두해야겠습니다.

발명인은 오직 발명에 몰두할 때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또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결실처럼 값지고 보람있는 것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발명계에 첫발을 내딛을 당시만해도 거의의 발명인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끼니조차 제대로 못잇는 발명인선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살았고, 또 성공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노력하는 발명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사회도 이제 발명인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하고, 정책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소장님의 발명에 대한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발명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좌우명 역시 발명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발명은 기업의 씨앗인 동시에 인류행복의 원천이지요. 그러므로 발명은 인류 행복을 위한 최상의 길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응용하면 불행도 맞이할 수 있지요. 다만 행복을 위한 방향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발명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하는 절대 절명의 요체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살아 숨 쉬는 발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명 외에도 학생발명인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렇습니다. 저는 경향신문사 자매지 소년경향에 발명교실을 개설하고 4년동안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각종 신문 잡지에 발명의 중요성 및 방법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2만여건이 넘는 어린이들의 발명을 심사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밝은 앞날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각국을 여행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어린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2만여건의 발명들이 하나같이 뛰어나 심사에 무진 애를 먹기도 했으나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명인을 희망하는 모든 어린이들을 훌륭

한 발명인으로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절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특허청에서 전국 학교에 학생발명반을 설치했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교육과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소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 저는 이미 29년전에 평생을 발명에 바치기로 결심한바 있으며, 이 결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발명과 함께 첨예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아이디어 전쟁에서 후학을 위해 계속 뛸 것이며, 노벨상보다 더 큰 「인생의 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꼭 한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사상과 이념을 떠나 지구촌시대가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 국제청소년발명전을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긴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白仁洪 記〉

한국발명특허협회신간안내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발명의 발상기법 중심—	—발명의 발상기법 총망라— 발명인의 길 규격 : 국판 200면 가격 : 2,000원	—발명 특허 실시 가이드— 발명인의 세계 규격 : 국판 200면 가격 : 2,500원
-------------------------------	---	--

판매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 (전화 : 551-5571~2)

◎ 알립 ◎

零細發明人을 돋습니다

大韓辨理士會에서는 극빈자가 發明·考案을 하여 이를 出願하고자 할 때 당회소속 辨理士가 무보수로 受任하여 모든 節次를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극빈자 發明人 여러분께서는 大韓辨理士會를 많이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①邑·面·洞長이 發行하는 영세생활보호대상자 증명 2통
②發明 考案의 要旨說明書 2통(도면 포함)

※ 자세한 사항은 大韓辨理士會(552-0882~5)로 問議바랍니다